



## A·P·A, 세계최대 알루미늄 그룹 탄생 세계 59개국 9만 1천명 종업원 종사

프랑스의 페시니사와 스위스의 알그룹, 그리고 캐나다의 알칸이 합병에 합의하고 자본금 2백16억달러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 그룹을 출범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새로 탄생하게 된 다국적 알루미늄 그룹은 세계 59개국에 9만1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그룹으로 부상하게 됐으며 그 명칭은 합병한 3개사의 머리글자를 모아 A·P·A로 결정했다.

A·P·A의 지분은 알칸이 44%, 페시니가

29%, 그리고 알그룹이 27%를 각각 갖기로 결정했으며 본사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두기로 했다.

이들 3개 회사의 작년 통합 수익은 약 25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3년 후에는 세전 순이익 41억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3개사의 합병에 따라 약 4천명을 해고, 2년 후부터는 연간 약 6천만달러의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합병사 중 알그룹은 이번 합병에 따라 화학부문 관련 기업인 론자사를 분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A·P·A의 회장은 알칸의 현 회장인 자크 부



기가 맡기로 했으며 앞으로 세계최대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와 자웅을 겨룰 수 있게 됐다.

한편 알코아는 이 날 라이벌 기업인 미국의 레이놀즈를 56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일본, 1리터병 420g 경량화  
청주 패키지로 종이팩에 대항**

일본의 야마무라유리사(TEL : 0798-32-2300)는 원웨이 1리터 청주병의 패키지를 420g 이상 경량화한 독자적인 성형 기술을 개발 했다.

청주 패키지 시장의 경우 1.8리터병부터 종이 팩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계속되고 있지만 야마 무라유리는 종이팩에 대항하는 초경량 패키지를 청주 패키지로 적용하고 용량도 개인용으로 마 시는데 적당한 1리터로 설정했다.

앞으로 야마무라유리는 퍼스널 수요를 획득하 므로써 유리병 복귀로의 발판으로 굳혀갈 생각 이다.

**일본, 다이옥신 흡착 PP제 식품용기 개발  
후쿠스케공업, 동업계 최초 성공**

일본의 후쿠스케공업은 동업계 최초로 부적절 한 조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발생하는 다이 옥신을 흡착하는 폴리프로필렌(PP)제 식품용기 의 개발에 성공했다.

일부 수요자에 대해 샘플을 출하하고 있고, 곧 본격 판매에 나선다.

이용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다이옥신 흡착 식품용기로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특성이 우수한 소재를 채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유통 업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쿠스케공업은 이 제품을 차세대를 맡을 중 핵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는 한 편, 약 90억엔에 그치고 있는 식품용기 사업매 상고를 금년도 말까지 최저 1백억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용기는 다이옥신 흡착 효과를 가진 인공 제올라이트를 PP에 혼합하여 진공 성형한 것으로 반찬이나 도시락 용기로서 사용 된다.

이 용기는 제올라이트 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혼합함으로써 통상의 PP 필러용기와 동등한 내 열성을 갖는다.

이미, 인공 제올라이트를 혼합한 쓰레기 봉투 를 상시하여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필름제품과 함께 중핵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는 식품용기도 응용하기로 했다.

후쿠스케공업은 이러한 특징을 어필하여 편의 점이나 슈퍼마켓을 통한 판매를 추진하는 동시 에 쇼핑백을 비롯한 폴리올레핀 필름사업으로 배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해 전국 규모로의 보급 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일본, 킵홀더가 달린 트레이 발매  
편리성과 안정감 겸비**

기타하라 산업(TEL : 086-526-3040)은 최 근, PP필러제 킵홀더가 달린 일체형트레이



'LEAF(리프)'의 본격 판매를 개시했다.

음료와 음식을 1개의 트레이에 한꺼번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에 음료가 든 컵의 안정감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 한다.

립식파티와 아웃도어, 스타디움 등에서 다양한 용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유럽, 초경량 플라스틱 용기 맥주 인기 같은 용량 병맥주에 비해 7배 가벼워

초경량 특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된 맥주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개월전 '33엑스포르' 제품을 PET수지 용기에 담아 프랑스 시장에 출시한 하이네켄사는 시장 반응이 좋아 조만간 다른 브랜드제품에도 이 용기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콘티넨탈 PET 테크놀로지(CPT)사가 하이네켄사를 위해 개발한 이 용기의 특징은 초경량이란 점이며 같은 용량의 병맥주보다 7배나 가벼워 운반이 용이하다. 또 외부 충격에도 강해 깨질 우려가 없다.

병 따개도 필요없고 먹다 남은 맥주를 다시 담아 보관할 수도 있다.

가격은 일반 병 맥주보다 비싸지만 편리성으로 인기가 대단하다.

9개월간 프랑스 시장에서 PET수지 용기제품을 시험 판매한 하이네켄사는 구입자의 70%가 같은 제품을 재구입하는 등 소비자 반응이 좋아 지난 6월 판매망을 유럽시장으로 확대했다.

한편 칼스버그사도 이번주 튀보르그와 칼스버그를 특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덴마크 시장에

출시한다.

PEN을 재료로 사용한 이 용기의 특징도 PET와 마찬가지로 내충격성이 강하며 초경량으로 병맥주보다 10배나 가볍다.

또한 먹다 남은 맥주를 장시간 보관해도 산화되거나 맛이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 재활용도 쉬워 덴마크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공식 승인받은 바 있다.

### 일본, 합성수지 가격인상 결정 대형메이커 중심 2년만의 추진

일본의 대형 합성수지 메이커들이 2년여만에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이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폴리프로필렌 및 염화비닐 등의 합성수지 제조원료인 원유와 나프타 가격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하위 메이커가 추이할 것이 확실시된다.

수요가의 저항은 예상되지만 각 사는 수요에도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의 실현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분야의 최대기업이며, 三菱化學 관련기업인 일본폴리켄은 전제품을 이번 달 16일 출하분부터 1kg당 10엔 인상하며 현재의 수요가 인도가격보다 7~9% 인상한다.

염화비닐에서는 업계 최대 규모의 기업인 도소 산하의 大洋염비가 이번 달 1일부터 1kg당 20엔 이상(대형파이프용에서 약 25%) 인상한다. 